

허씨애기 열느술에  
알드르 이칫 애기업개로 가,  
거기 좀수 서이  
마라도에 물질을 갔다가  
오월 장마이 되여서  
사흘을 거기 무인지경에  
천막을 쳐서 늑게 되는디.  
흐를밤 몽에는  
산신대왕이 누르서  
선몽을 헉되,  
“열느술 난 처녀를  
두고 가민  
너가 살 것이라.” 헉여.  
그런디 이제는 날이 새여.  
태가 나오라,  
올라온 덕으로  
섬비물 와서 태에 올라.  
열느술 난 애기업개?라  
“저디 지성귀 넌 거, 강  
?정 오라.” 헉여.  
애기업갤 똑기 털어치와두언  
태를 티와 떠나 오니.  
그 할망이  
낮에 일뢰 밤에 일뢰  
열나흘 굶어 죽으니.  
뒷햇 수월이 나니  
거길 간 보니

꽝만 술근호였으니

이제는

아미선관 신도본향

일뢰중주로 들어사니.

이 무을에선

이 당을 잘 위호니

일신 펜고흡네다.

제일 매 7일

<대정읍 가파도 남무 62세 정신송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42-543.